

스페인어 텍스트 결속구조와 효과적인 교수방안

심영식
단독/선문대학교

Sim, Young Sik (2011), Los medios cohesivos de español y una propuesta para la enseñanza de estos recursos en el texto.

Abstract La coherencia y la cohesión han sido los dos conceptos principales en torno a los que se han desarrollado los estudios relacionados con el texto y hemos podido entender que la cohesión se refiere a las relaciones sintácticas-gramaticales y léxicas en la superficie textual mientras que la coherencia está basada en las relaciones semántica y pragmática y es lo que le hace conferir al texto unidad de sentido. Pues, en nuestro estudio primero hemos presentado como medios cohesivos la recurrencia, la sustitución, el tiempo verbal y los marcadores discursivos y después hemos intentado crear un modelo de enseñanza de estos recursos léxicos y gramaticales en la clase. Para la explicación de la repetición léxica hemos comparado un texto periodístico de español con el de coreano y para la comprensión global de otros medios cohesivos hemos dado como ejemplo una carta escrita por un nativo de español para acercarnos más a la vida cotidiana, pues el tema de la carta se trata de las vacaciones de verano. Después de explicar los recursos de cohesión insertados en los textos, hemos tratado de crear unos ejercicios para la práctica de cada medio cohesivo y por último, otro ejercicio global repetido para la aplicación real de los recursos que le conceden al texto unidad de sentido.

Key words Medios cohesivos, Coherencia, Enseñanza de español
결속구조, 결속성, 스페인어교육

I. 서론

국내 스페인어 교육 상황은 대다수 성인이 되어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경우이고 대부분의 학습자가 학습 초기 가장 기준이 될 만한 문법서를 토대로 목표언어에 대한 접근을 시작한다. 이는 모국어이외 다른 외국어 학습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리를 모르는 곳에서 원하는 곳에 도달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의 지도를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문법이 외국어를 배워 사용할 때 실제 구두 의사소통 시 심리적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초급 수준에서든 고급 수준에서든 문법은 올바른 언어사용의 지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문법도 도달할 목표가 아니라 실질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향을 잡아주는 지침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문법교육이 실제 언어사용에 가까워야 하는 이유이다. 실제 언어사용에 근접한 문법교육이라 함은 문법이 문법체계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체계의 구성요소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를 보여주고 실제 사용을 연습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교육이 문법만을 가르치기 위해 그 예와 연습자료를 문법요소의 이해만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 언어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 상황의 예가 필요하며 그 연습도 실질 의사소통상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텍스트를 단위로 그 결속구조를 연구해보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평상시 모국어나 외국어를 구사할 때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기보다는 여러 문장이 복합된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네 가지 언어기능 측면에서도 한 문장 이상의 사용이 다수이다. 말을 할 때, 말을 들을 때, 글을 읽을 때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단문으로 끝나기보다는 여러 문장을 사용하여 총체적인 의미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이며 이를 목표로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외국어 습득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텍스트 구성 능력 배양을 목표로 스

페인어 텍스트 결속을 위한 결속구조와 결속구조의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자 모국어인 한국어와는 다른 스페인어 결속 구조를 어휘반복, 대응, 시제, 담화 표지어로 분류해 설명해 보고 학습자가 각 결속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텍스트에 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¹⁾

II. 스페인어 결속구조

일반적으로 한 언어에 대한 언어능력을 습득했다 함은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문장을 구성할 줄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통해 텍스트를 구성하여 전체적 맥락의 의미를 전달하는 텍스트 구성능력이 실제생활에서의 실질적 언어능력에 좀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어떤 종류의 텍스트이건 그 기저에는 의미의 일관성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러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결집을 텍스트 결속성(coherencia)이라 하고 텍스트 결속성을 이루고자 하여 사용하는 구체적인 언어요소가 중요한데 이 언어요소를 결속구조(medios cohesivos)라 한다. 언어마다 문장 단위 또는 그 하위 단위에서도 그 특징을 갖고 있듯이 텍스트 단위에서도 그 결속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며 외국어 습득 시 해당 외국어의 결속구조를 아는 것이 의미전달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1. 어휘반복(la recurrencia)

반복은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결속구조이며 반복은 단순한 어휘의 반복뿐만 아니라, 동의어, 상·하의어, 대명사, 관사 등으로 어휘, 문법적인 다양한 요소로 나타나나 본 절의 반복은 어휘적 측면에 국한하기로 한다.

1) 결속성, 결속 구조의 정의와 스페인어 결속구조의 하위분류는 Sim(1999)의 논문 'Cohesión, Coherencia e Interlengua'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한 것이다.

어를 가진 ‘아파트’, ‘개인주택’, ‘별장’ 등 하의어를 통해 앞서 언급한 것을 다시 지칭하는 것으로 다음의 예에서는 구체적인 축구팀인 ‘FC Barcelona’를 상의어 ‘equipo’로 반복하여 텍스트 내에서 다시 언급한 것이다. 상의어 반복이외에도 ‘vuelta’는 ‘parte’로 ‘liga’는 ‘torneo’로 같은 텍스트 내에서 동의어 반복 결속구조의 예도 아주 잘 나타나 있다.

El entrenador del **FC Barcelona**, Pep Guardiola, se ha mostrado muy feliz por haber alcanzado los 52 puntos al final de la primera vuelta de la Liga, pero se ha preguntado si su **equipo** será capaz de seguir compitiendo al mismo nivel en la segunda parte del torneo.(RTVE.es 2011. 1. 16)

244
 245

2. 대용(la sustitución)

텍스트 내에서 앞서 언급한 것을 다시 지칭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결속구조로 스페인어에서는 텍스트 외적인 요소를 지칭할 때와 차이가 있으며, 사실 대용이라 하면 생략(elipsis)도 포함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텍스트 표층에 드러나는 어휘, 문법구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1) 대명사(pronombres)

텍스트 내의 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법요소로 해당 대명사가 텍스트 내의 어떤 명사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예에서도 이 텍스트 전의 내용을 통해 ‘Víctor Monasterio’란 인물이 가수라는 것을 알아야하고 텍스트 전체의 문맥의 이해를 통해 세 번 반복되는 ‘le’가 ‘Lola’를 가리키고 소유대명사 ‘su’와 목적대명사 ‘lo’는 ‘Víctor Monasterio’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Lola no **le** gusta nada Víctor Monasterio. No **le** gustan nada sus canciones sobre amores imposibles y no **lo** encuentra nada guapo. **Le**

parece muy horterera. Lleva siempre zapatos blancos y está siempre muy moreno, moreno de rayos UVA.(Lourdes Miquel y Neus Sans 2003, 10)

2) 관사(el artículo)

스페인어의 텍스트 결속구조 중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이 관사인데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하고 이를 다시 언급할 때는 정관사를 사용한다. 다음의 텍스트에서는 처음 정보를 소개할 때와 그 정보를 다시 언급할 때의 정관사의 사용을 알 수 있는데 맨 처음 ‘un extraño brujo’ 로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이후 ‘él’, ‘le’ 와 같은 대명사로 언급한 후에 정관사를 사용하여 ‘el brujo’ 라고 언급된 인물을 대치하고 있다.

Había una vez **un extraño brujo** que se dedicaba, aparentemente, a llamar a las puertas de las casas de los pueblos porque pasaba, tratando de convencer a sus moradores para que **le** comprasen unas pócimas que **él** calificaba de maravillosas. Algunos **le** prestaban atención y **le** compraban sus frascos, pero la mayoría **le** volvían la espalda. Para éstos últimos tenía **el brujo** un tratamiento especial: pasado algún tiempo, regresaba a sus casas y averiguaba si en ellas vivía alguna joven. Si era así, **el brujo** se las arreglaba para hablar con ella, después de lo cual nadie la volvía a ver.(Mis cuento de Hadas 1973, 36)

3) 대부사(proadverbios)

장소를 지칭하는 대부사로는 ‘aquí’, ‘ahí’, ‘allí’ 등이지만 이 중 텍스트 내에서 앞서 언급된 장소를 대치할 수 있는 부사는 다음 문장의 예처럼 ‘allí’ 이다.

El fin de semana pasado fuimos al Palacio Real y **allí** me encontré con la familia de Juan.

텍스트 내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외적인 현재의 장소는

‘aquí’ 를 사용한다.

En esta época hace mucho frío afuera, pero **aquí** está bien para hacer deporte.

3. 시제

스페인어의 동사시제 또한 텍스트의 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스페인어 과거시제의 부정과거와 불완료과거는 단문이 아닌 텍스트 상에서의 이해와 사용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화자가 과거 서술을 시작하는 데 있어 앞뒤의 아무런 문맥 없이 다음과 같은 발화를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

“Ayer iba a tu casa.”

이 문장만을 들은 청자는 불완료과거가 가지는 상황의 묘사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 기대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과거와 같은 기준 시제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Ayer iba a tu casa cuando tuve un accidente”(Gutiérrez Araus 1995, 28).

다음과 같은 텍스트에선 부정과거와 불완료과거의 텍스트 상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Media ciudad *debió de haber estado* anoche en el cine Apolo, viendo la cosa y participando también del tumultuoso final. Yo *estaba* aburriéndome en la mesa de póker del club y sólo *intervine* cuando el portero me *anunció* el llamado urgente del hospital(Gutiérrez Araus 1995, 28).

이 텍스트의 주요한 행위는 부정과거로 표현되었고(*debió de haber estado, intervine, anunció*) 부정과거로 표현된 모든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동은 불완료과거로 되어있음을(estaba aburriéndome) 이해해야 텍스트 전체의 결속성과 그 이해가 이루어진다(Gutiérrez Araus, 29).

4. 담화표지어

스페인어 담화표지어 대표적 학자인 Portolés는 담화표지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Los marcadores del discurso son unidades lingüísticas invariables, no ejercen una función sintáctica en el marco de la predicación oracional y poseen un cometido coincidente en el discurso: el de guiar, de acuerdo con sus distintas propiedades morfosintácticas, semánticas y pragmáticas, las inferencias que se realizan en la comunicación.(Portolés 1998, 25)

담화표지어는 문장 내에서 어떤 구문론적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담화 또는 텍스트에서 담화표지어 각각의 성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 요지로 텍스트 결속성을 위해서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결속구조이다. Portolés(1998, 146)는 다음과 같이 담화표지어를 분류해 놓았다.

- 1) Estructuradores de la Información(정보구조표지어)
 - a. comentadores(도입어): pues, bien, pues bien, bueno
 - b. ordenadores(정보정렬어)
 - marcadores de apertura(시작): primero, en primer lugar, por una parte, por un lado
 - marcadores de continuidad(계속): en segundo/tercer lugar, por otra parte, por otro lado
 - marcadores de cierre(종결): por último, en último lugar, en último término, en fin, por fin, finalmente
 - c. digresores(탈제어): por cierto, a todo esto, a propósito
- 2) Conectores(접속어)
 - a. conectores aditivos(부가): incluso, además, encima, aparte
 - b. conectores consecutivos(결과): pues, así pues, por tanto, en

consecuencia

c. conectores contraargumentativos(반증): en cambio, por el contrario, sin embargo, con todo, ahora bien

3) Reformuladores(환언표지어)

a. explicativos(설명): o sea, es decir, bueno

b. rectificativos(정정): mejor dicho, más bien, bueno

c. de distanciamiento(절연): en cualquier caso, de todos modos

d. recapitulativos(요약): en suma, en conclusión, en resumen, bueno

4) Operadores discursivos(논증강화)

a. de refuerzo argumentativo(논증강화표지): en realidad, de hecho, claro, desde luego, la verdad

b. de concreción(예시표지): por ejemplo, en concreto, en especial, en particular

5) Marcadores de control de contacto: hombre, mujer, anda, mira, oye.

III. 스페인어 결속구조 교수 방안

그 동안 스페인어 텍스트 결속구조에 관한 논의와 각각의 결속구조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결속구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특히 스페인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지 교수방안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상에 나타나는 스페인어 결속구조를 총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연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어휘반복 양상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어, 스페인어 텍스트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의 소개를 통해 스페인어 결속구조를 다시 총체적으로 이해해보고 이를 결속구조별로 연습,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어휘반복

다음은 같은 내용의 뉴스에 관한 한국어, 스페인어 텍스트로서 양 언어의

어휘반복과 대응의 차이를 알 수 있어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의 한국어-스페인어, 스페인어-한국어 번역수업이나 시사적인 강독텍스트로서도 아주 유용할 것이다. 두 가지 텍스트를 나눠주고 그 차이점을 스스로 알아보도록 하고 이후 스페인어 결속구조로서의 어휘반복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면 그 이해와 응용이 용이할 것이다.

이 대통령 “軍 복무 기간 환원 신중 검토 필요”²⁾

이명박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로부터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안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복무기간 환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가안보 총괄 점검회의는 보고를 통해 원활한 병력 수급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게 돼 있는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안보총괄점검회의의 활동과 보고가 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군을 강화하려면 장비나 제도의 강화보다도 지휘관의 정신자세 확립이 더 중요하다며 군 인식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군대 인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군이 사는 길이라며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ee Myung Bak hace un llamado a la discreción sobre el tema del servicio militar

El presidente de Corea del Sur, Lee Myung Bak, (afirmó) que la conversión de la duración del servicio militar en 24 meses requiere de una revisión seria.

En *la reunión del Consejo para la Revisión Integral de la Seguridad Nacional* celebrada el viernes 3, **el mandatario** fue informado de los

2) KBS World 2010년 9월 3일자 동일한 내용에 관한 한국어, 스페인어 뉴스이다. 일견 한국어-스페인어 번역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KBS World의 외국어 뉴스들은 한국어 뉴스를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번역본이든 아니든 같은 내용을 기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결속구조의 비교에는 상당히 유용하다.

defectos de seguridad revelados tras el incidente naval Cheonan y las alternativas para superarlos.

En *la cónclave*, **Lee** (matizó) que la propuesta de obligar a cumplir el servicio militar por dos años no es fácil de materializarse. Ese día, el citado órgano propuso **al presidente surcoreano** reintroducir el sistema del servicio militar obligatorio de 24 meses, con la finalidad de facilitar la movilización de soldados.

Bajo estas circunstancias, **el jefe de Estado** exhortó al Ejército Nacional a buscar otras alternativas para reforzar su capacidad militar. Recalcó, en esta línea, que la reforma militar debe partir de una elección justa del personal.

스페인어 번역본이 한국어 뉴스의 의미를 기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표층에 나타난 총괄적인 결속구조의 비교에 상당히 유용한 자료이다. 우선 가장 두드러지는 비교대상이 어휘 반복인데 그 차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에 국한해서도 한국어, 스페인어 텍스트 결속구조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어 텍스트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란 단순 어휘의 반복이 두 번씩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해 스페인어 텍스트에선 동일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는 표현이 ‘el mandatario’, ‘Lee’, ‘el presidente surcoreano’, ‘el jefe de Estado’ 등 동의어로 표시되어 단순어휘의 반복을 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어휘반복은 한국어 텍스트의 ‘말했습니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는 스페인어 텍스트에서 ‘afirmar’, ‘matizar’ 등 다양한 다른 동사로 표현되고 있다. 스페인어 텍스트 상에서 단순어휘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결속구조는 상·하의어 반복을 사용한 것인데 이는 한국어 텍스트의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를 지칭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어 텍스트에선 단순 반복을 통해 텍스트의 결속성을 유지하는 데 반하여 스페인어 텍스트에서는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En la reunión del Consejo para la Revisión Integral de la Seguridad Nacional)가 나오고 그 다음 이를 통칭하기 위한 *la cónclave*(=reunión), *el citado órgano* 등 상의어를 통한 반복을 결속구조로 사용하고 있다. 어휘반

복에 관한 두 텍스트의 차이는 앞서 스페인어 접속구조를 소개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즉흥적인 구두 텍스트가 아닌 경우 단순어휘반복을 피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예증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위의 두 텍스트에서 어휘반복 이외의 또 다른 접속구조는 대용(sustitución)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스페인어 텍스트에선 목적대명사, 지시대명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안보상 문제점(los defectos de seguridad)’ 이 그 다음 문장에서 ‘los’ 라는 목적대명사로, ‘금요일 3일(el viernes 3)’ 은 이후에 ‘ese día’ 로 재차 언급되고 있고 ‘Bajo estas circunstancias’ 와 ‘en esta línea’ 에서는 문맥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시형용사가 포함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대용, 시제, 담화표지어

앞서의 시사적 뉴스 텍스트는 어휘반복과 대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번역 및 강독 텍스트로선 유용하지만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 학습자들이 총체적으로 스페인어 접속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텍스트로는 그 주제와 문체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글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 텍스트는 좀 더 일상적인 주제와 문체로 스페인어 접속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견본이 될 것이다.

¿Qué tal estás? Yo sé que hace tiempo que no sabes nada de mí, pero he tenido **un** verano bastante “ocupado”. **Claro, esto** no significa que no me haya acordado de ti. Ya que aunque pasen meses sin llamarnos ni escribimos sigue siendo para mí, mi mejor amigo, pero eso ya **lo** sabes, no hace falta que te **lo** diga ¿verdad?

Terminé la universidad a mediados de julio, esto fue lo peor, ya que en Madrid hacía mucho calor y todos estábamos con ganas de acabar e irnos a casa. Nada más terminar me fui a Valladolid. ¿Ya sabes mi pasión por mi ciudad natal? **Allí** como siempre mucha fiesta, mucho dormir... **pues** no suspendí nada. La última quincena de agosto estuve de viaje con mis padres por Centro de Europa, la verdad es que fue muy divertido, **lo** repetiría sin pensármelo.

Y septiembre hice algo “útil”, empecé a sacarme el carnet de conducir, ya que tenía muchas ganas de tenerlo, porque como sabes me apasiona todo lo relacionado con el mundo del motor. Me **lo saqué** en ese mes y ahora una novata al volante, aunque procuro que no se note.

Y ahora nada de nuevo a la vida cotidiana: clases, madrugar...

La verdad es que no te he contado muchos detalles, pero sabes por lo que es, ¿verdad?. Es que prefiero contártelo por teléfono o en persona, ya que por carta me gusta menos.

Bueno, me prometiste venir a verme un fin de semana, así que te espero. Ya te llamaré y te contaré. Un beso.(Sim 1999, 442)

친구에게 여름방학의 경험을 쓴 편지글로서 그 내용과 표현 등의 이해가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도 텍스트 상의 대용, 담화표지어, 시제의 사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 어휘반복을 제외한 스페인어 결속구조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다. 먼저 텍스트에 진하게 표시된 것은 대용어와 담화표지어의 사용으로 각각의 용법을 잘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대용어로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내용을 언급하는 지시대명사 ‘esto’, ‘eso’ 그리고 목적대명사 ‘lo’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이외에도 텍스트 상의 관사, 대부사, 지시형용사용법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텍스트 맨 첫 줄에 나오는 관사 ‘un verano’의 경우도 앞으로 말할 주제를 처음 소개하는 의미로 부정관사를 이해할 수 있고 텍스트 상에서 앞서 말한 장소를 다시 지칭할 때 우리 학습자의 모국어인 한국어에서처럼 ‘aquí’는 사용될 수 없고 ‘allí’가 사용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다. ‘En ese mes’의 경우는 시간과 관계된 지시형용사의 사용을 텍스트 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담화표지어는 ‘claro’, ‘pues’, ‘bueno’ 등이 텍스트 내에서 각각 ‘논증강화’, ‘결과결속’, ‘결론표지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과거 서술이 주가 되는 텍스트의 대표적인 결속구조는 시제인데 밑줄 친 과거 동사의 형태를 보면 부정과거와 불완료과거가 텍스트 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terminé’, ‘fue’, ‘me fui’, ‘suspendí’, ‘estuve’, ‘fue’, ‘hice’, ‘empecé’, ‘saqué’ 등은 사건 진행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hacía’, ‘estábamos’,

‘tenía’ 등의 불완료과거는 부정과거를 통해 진행되는 사건의 상황묘사, 즉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제가 단문이 아닌 텍스트 상에서 설명되어져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대용, 시제, 담화 표지어의 연습

앞선 절에서 일상적인 편지글을 통해 어휘반복 이외의 종합적인 결속구조 사용의 예를 보았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결속구조 대용, 시제, 담화표지어의 연습을 위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각각의 결속구조를 이해, 연습해 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앞의 편지글과 같은 내용과 문체의 텍스트로 종합적으로 결속구조를 사용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실제의 예로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용

우선 다음과 같은 텍스트의 빈 칸을 채워 넣는 연습문제는 대용의 대명사, 관사 등의 텍스트적 용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적절하다.

Leopoldo Luis II, un rey de Gantea, salió el sábado de paseo en un caballo de la reina. En la puerta (un) soldado (lo) despidió. Al llegar a un río, cruzó por (un) puente y se encontró con los duendes del agua y (éstos) le dijeron: Va a venir un príncipe del país vecino, se va a enamorar de tu mujer y va a huir con (ella). (El) rey no creyó nada de las palabras de los duendes, cruzó (el) puente y volvió a palacio. Pero en la puerta estaba (el) soldado que, muy nervioso, (le) dijo: Majestad, la reina se ha ido.(Rosario Alonso Raya *et al.* 2005, 32)

무엇보다 사람이나 사물을 처음 도입할 때 사용하는 부정관사와 다시 언급할 때의 정관사의 사용을 연습할 수 있고 목적대명사, 지시대명사, 전치사 다음의 인칭대명사의 사용도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인칭대명사의 사용에 있어 텍스트 형태와 문체는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한국어에서의 인칭대명사의 특징과 비교, 설명한다면 더욱 흥미롭게 스페인어 결속구조와의 차이를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화제 속에 막을 내린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하지원씨는 20일 ‘길라임’과 ‘김주원’의 행복을 빌었다. “뭔가 일탈을 해봐야 길라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길라임처럼 웃는 그에게 <시크릿 가든>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 가볍고 밝은 캐릭터에 대한 욕심으로 <시크릿 가든>을 선택했다는 그, 하지만 이번 역시 마냥 재미있기만 한 작품은 아니었다.(한겨레신문 2011. 1. 22, 22면)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서는 다르지만 한국어 신문기사에서 여성을 지칭할 때 ‘그에게’, ‘그’라는 남성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예이며 계속되는 기사에서도 ‘그는’이란 남성인칭 주격대명사로 여배우 하지원을 지칭한다.

2) 시제

편지글에서 보았듯이 과거 서술에 있어서는 시제가 텍스트 결속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텍스트를 통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일상적 과거의 경험을 서술하는 텍스트를 견본으로 과거시제 사용을 이해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과거를 통해 사건 진행이 되고 불안료과거를 통해 상황, 인물 묘사 등의 배경이 설정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Pues, yo conocí a Juan hace 5 años exactamente cuando eramos estudiantes. En aquella época Juan compartía piso con Paco, un compañero mío de clase. Un día, Paco me invitó a comer en su casa y nos presentó. Todavía recuerdo perfectamente la primera vez que vi a Juan. Estaba haciendo la comida en la cocina y llevaba unos pantalones negros y una camisa roja que me pareció preciosa. Luego, comimos, tomamos una paella de pescado que estaba buenisima. Y después, hablamos de muchas cosas. La verdad es que Juan me pareció una persona interesantísima y me cayó muy bien. Cuando volvía a casa me di cuenta de que sentía algo especial por él. Al día siguiente pensé mucho en él y por la tarde volvimos a vernos. Fui a su casa con la excusa de pedirle un libro a Paco. Luego, fue todo muy rápido y en poco tiempo nos enamoramos.(Virgilio Borobio 2002, 22)

시제 이외에 먼 과거를 가리키는 지시형용사 ‘aquella’의 사용과 담화표지어 ‘pues’, ‘luego’ 등의 이해도 과거 서술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다음과 같은 비슷한 종류의 텍스트의 밑줄 친 빈 칸에 괄호 안 동사원형의 알맞은 시제를 넣는 연습을 해보고 확인한다면 결속구조로서의 시제의 학습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Hay un(artículo) encuentro no esperado que recuerdo con horror. Fue(ser) hace unos años cuando estaba(estar) haciendo el primer curso de la carrera. Tenía(Tener) un examen que no había preparado(preparar) y le dije(decir) al profesor de esa asignatura que no podía(poder) hacerlo(pronombre complemento) porque mi padre se encontraba(encontrarse) muy mal, y que estaba(estar) en el hospital. Y esa(demostrativo) misma noche fui(ir) al cine y me encontré(encontrarse) con el profesor en la cola. ¡Huy! ¡Menuda sorpresa! No dije(decir) nada, pero me puse(ponerse) roja, totalmente avergonzada. Él(pronombre) tampoco dijo(decir) nada. Estaba(estar) muy enfadado y, por supuesto, luego(marcador) me suspendió(suspender). (Virgilio Borobio 2002, 23)

시제 연습의 첫 번째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의 부정관사 ‘un’, 과거완료 ‘había preparado’, 목적대명사 ‘lo’, 이미 언급한 시간을 지칭하는 지시형용사 ‘esa’, 주격 인칭대명사 ‘él’, 담화표지어 ‘luego’ 등도 텍스트 문맥을 이해하여 적절한 형태를 넣어보는 연습을 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결속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담화표지어

담화표지어의 연습도 앞선 담화표지어의 분류에서 소개한 것처럼 그 종류와 쓰임새에 따라 분류해 다양한 담화표지어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다음과 같은 예문의 빈 칸에 알맞은 담화표지어를 넣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단문만을 말하고 표현하는 데 익숙한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용례로 담화표지어의 사용을 숙지,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ector aditivo:

“Le he comprado un helado y, (encima), llora.”(Portolés 1998, 78)

-Reformulador recapitulativo:

“Hablamos mucho, pero, (en definitiva), no llegamos a nada.”(Clave, 551)

-conector consecutivo:

“No quiero que me vea y, (en consecuencia), saldré por la otra puerta.”
 (Clave, 469)

-Digresor:

“Cariño, tienes que hacer tú la compra. Acuérdate de traer tomates para el gazpacho, que no hay, y también compra huevos para la tortilla. Necesitamos agua mineral y café descafeinado. (Por cierto), saca dinero del banco. Yo no tengo.”(Rosario Alonso Raya *et al.* 2005, 34)

-Operador de concreción:

“¿Un lugar tranquilo para ir de vacaciones? pues puede ser, (por ejemplo), la montaña porque en la costa hay demasiada gente.”(Clave, 665)

-Reformulador explicativo:

“Es orden del jefe, (o sea), que hay que hacerlo.”(Clave, 1290)

-Conector contraargumentativo:

“Ya me han dado de alta pero, (con todo), no me atrevo todavía a salir a la calle.”(Clave, 1769)

-ordenador:

“(Por una parte) es un trabajo muy apetecible, pero (por otra), me parece muy arriesgado.”(Clave, 1363)

4) 종합

다음 텍스트는 대응, 시제, 담화표지어를 실제 텍스트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의 견본 텍스트와 같은 주제와 종류의 편지글이다. 스페인어 접속구조 각각을 연습한 이후 이전과 같은 양식의 편지글과 비교하며 밑줄 친 곳에 알맞은 접속구조를 써넣어 보는 연습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접속구조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Hola! ¿Qué tal?

Bueno(**marcador**), yo estoy bastante bien tras el verano. ¿Quién no va a estar bien?. Perdóname por no haberte escrito antes, pero es que he

결속구조의 차이점을 응용한 관련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관련 분야에서는 텍스트 단위의 관심보다는 문장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고 문장범위를 넘어서는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문법요소에 관한 텍스트 또는 담화에서의 교육 필요성만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텍스트단위 교육 필요성의 인식 아래 텍스트 기저의 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페인어 결속구조를 알아보고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실질적인 텍스트 구성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결속구조의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스페인어 결속 구조를 실제 텍스트의 예를 통해 어휘반복, 대용, 시제, 담화표지어로 분류해 설명해 소개했고 이후, 각각의 결속구조별로 효과적 교수방안을 실제 예를 통해 제시해 보았다. 어휘 반복은 같은 내용의 한국어, 스페인어 기사를 통해 그 이해를 돕도록 했고 대용, 시제, 담화표지어는 학습자들이 좀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관련된 주제의 편지글 텍스트를 통해 포괄적인 예를 제시했다. 이후, 각각의 결속구조 이해와 습득을 위한 개별 연습문제를 제시한 후 다시 포괄적인 이해와 연습을 위해 앞서 소개되었던 일상적인 편지글과 같은 종류와 같은 주제의 텍스트를 이용했는데 이는 종합적인 반복을 통해 결속구조의 이해와 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예로 든 텍스트와 같은 주제의 작문을 해볼 것을 제안한 것은 결속구조의 설명과 연습이 단순한 이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실제로 응용되어야 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이며, 충분한 자료 제시와 연습 그리고 효율적인 교수방안만이 이런 목표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란 생각이다.

참고문헌

- Belinchón, M. et al.(1992), *Psicología del lenguaje. Investigación y Teoría*, Valladolid: Trotta.
- Bernárdez, E.(1982), *Introducción a la Lingüística del Texto*, Madrid: Espasa Calpe.
- Bustos Gisbert, J. M.(1996), *La contrucción de textos en español*, Salamanca:

